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7

충현의 만나

2005

가정예배 로마서 · 시편 · 잠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7

2005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로마서 · 시편 · 잠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구원의 은총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고 미래도 아십니다.
나의 생각과 행위를 아시며 범죄함도 아십니다.

내 영혼을 보시고 상한 심령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를 알아주셨고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로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은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구원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 손 들고 나아갑시다.

7월의 무더위가 삼신을 녹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이 시원한 그늘과 같이
우리의 지친 심령을 감싸줍니다. 지옥의 불꽃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2005년 7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기 도 제 목

- ①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써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 ② 충현의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푸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사역에 온 성도가 헌신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 ④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교구가 성장하여 온 교회가 참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 ⑤ 양육과 훈련의 모임을 통해서 충현의 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소서.
- ⑥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서신서의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안부와 축복으로 머리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1-7절). 그는 로마 교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만간 그 곳에 찾아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8-15절). 로마서의 본론은 16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본론에서는 로마서의 주제가 진술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 16, 17).

16-17절은 복음 중의 복음, 또는 복음의 핵심이라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성경 진리를 핵심적으로 간추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 득의’의 주제는 로마서 전반에 걸쳐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포함한 서신서 전체를 통해 바울이 주장하고자 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것은 선행이나 외적 표식이 아닌 ‘오직 믿음’이라는 핵심 교리가 공적으로 천명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 외에 인간의 짓을 부가적으로 더하여 구원의 요소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할례나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

기도 제목 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매일 성경묵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본문의 전반부인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진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을 결정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을 첫째, 진리대로(2절), 곧 사실의 경우와 일치하게 판단하며 둘째, 행한 대로 판단하며(6-11절) 셋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입각하여 판단하십니다(12-15절). 바울이 이처럼 자세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고 있는 까닭은 유대인들의 죄를 논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릇된 특권 의식에 집착했을 뿐, 진리(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할례와 유대인으로서의 혈연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유한 사실을 자랑거리로 삼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이었습니다(17-24절).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참 유대인(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곧 율법을 지켜 행할 때, 할례는 비로소 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성령에 의해 마음에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데 있어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참 유대인이고 참 할례자인 것입니다. 은연 중에 여러분들께도 유대인들처럼 교회에 다닌 신앙의 연수나 직분의 정도와 같은 신앙 외의 조건으로 만족하며, 이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롬 2:28).

기도 제목 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은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한 칭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연장선상인 본장에서 아브라함의 칭의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율법)가 아닌 순종(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칭의는 구속 언약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요컨대 칭의의 관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도 못합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요,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워집니다(23-25절).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육체가 없으며, 구원을 받을 인생이 없습니다. 칭의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일을 아니할찌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열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하심을 받으며 구원을 얻는 자들의 행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이 이러한 복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롬 4:3).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하시며 의롭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로마서 3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8절까지는 2:17-29에서 언급된 내용의 연장선으로 유대인들이 당할 심판의 당위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 가운데 하나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진리를 언급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10-12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이러한 성경 구절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해답을 21-31절에서 제공합니다.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인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21-24절).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습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죄가 가득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참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2).

기도 제목 ① 참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 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은 로마서 3장과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논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장에서는 칭의의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적대감을 갖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룩된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으매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 6:10). 다음으로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함으로써 칭의의 결과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12-21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6:12).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의 정죄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이 인류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였으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죄 가운데 빠진 인류는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의 문제를 해결 받으며 의롭다고 칭해집니다. 이러한 칭의를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21절). 죄로 말미암아 영벌에 처해진 우리를 용서하시며 의롭다 칭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 용서를 받으며 의롭게 됨을 믿게 하여 주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앞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의 결과를 설명했다면 본장은 의롭다고 인정된 자, 곧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에 종 노릇 하였으며(6절), 법(율법)에 얽매어 영적 사망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6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으로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자신을 부인하는 순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16절). 죄의 종에서 벗어난 순종의 종이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명령하고 요구하고, 죄를 억제하고 정죄하며, 그리스도께 가도록 길을 지시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율법을 어기는 자를 의롭다 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은혜 아래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될 때 비로소 온전해 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4절).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6)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로마서를 통한 바울의 선포는 본장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원의 확신과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성령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 이라”(1-2절) 그리고 난 후 성화의 삶의 본질을 규명하고(12-17절) 장차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할 축복을 선포합니다(18-30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실성을 강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31-39절).

바울은 본장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9절).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이라”(13-14절).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11절).

기도 제목 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은 앞 장에서 신자와 율법의 관계를 간략하게 언급하였습니다.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은 마치 남편과도 같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동안에 아내를 주장하듯, 율법은 과거에 우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그의 주권에서 벗어나듯, 이제 신자도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어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4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18-19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그 괴로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24절).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민과 번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해결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25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롬 7:10)

기도 제목 ①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흔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만 알고 있어서 자기 민족 구원에 무관심했던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1절부터 5절은 그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얼마나 애타게 염원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행위에 의한 자기 의에 빠져서 그것만을 고집하다가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자기의 자기 민족을 바라보며 매우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1-2절).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 구원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던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찌라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바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찌라도 원하는 바로라”(3절).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허탄한 것들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주변 전도를 비롯 국내 전도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전도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아직까지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이 전달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롬 9:4).

기도 제목 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은 본장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1절). 그러나 그들은 영적 무지로 인해서 참된 구원의 길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대조시킴으로써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릇된 구원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5-13절).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통한 구원의 요청을 뿌리쳤습니다(16-21절). 이러한 그들의 거절은 그들이 당할 심판의 당위성을 확증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13절).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믿음 이외에 다른 무엇을 첨가하고자 하는 시도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악한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3절).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행위나 율법을 통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며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4절).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히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롬 10:11).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은 바로 앞장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한 교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사실을 소개한 뒤 본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완악함은 과연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목적을 사실상 좌절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선민의 구원이 여전히 확실한 약속으로 남아 있는가' 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바울은 비록 이스라엘이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완악함을 보였지만(7-10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갈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1-6절). 한편 그 남은 자란 그 스스로가 선택 신앙 양심을 끝까지 견지한 자가 아니라 그 역시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 를 가리킵니다.

이어 중반부(11-24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인간의 행위나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전개됨을 보여줍니다. 이어 죄인에게 주어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엡 2:8,9)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느 누구 하나 자만하거나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구속사적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25-36절)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을 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25-26절)이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뒤이어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으로 전 구속사를 주권적으로 경륜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허물의 집합체인 '나' 를 향하여 한 번의 후회도 없으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눈길과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서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 11:29).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② 찬양 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국가 권력을 무시하거나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권세를 거역하는 태도이므로, 절단코 합당치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 하에 본장은 그리스도인의 윤리 문제에 있어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문에 근거하여 상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7절에서는 국가의 권세의 기원(起源)은 하나님이며, 위정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6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복종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킬 것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10절은 앞선 교훈을 이웃에게까지 보다 확장시킨 것으로서 십계명 중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다섯 계명인 제 6-10계명의 준수는 결국 근본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14절에는 임박한 종말에 즈음하여 성도들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 의를 실천하는 일에 더욱 전력하여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도를 미혹케 하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해이해지기 쉽습니다(눅 21:34).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시길 생각지 않은 때에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마 24:44).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리며 모든 방탕한 생활을 거두고, 곱게 단장한 신부와 같이 신랑 되신 주님 맞을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맙시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4).

기도 제목 ① 어두움의 일을 벗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원들이 ‘단기선교’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서의 전반부(1-11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도리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이제부터(12-16장)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서의 전반부는 교리(敎理)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는 실천(實踐)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실천적 생활에 대한 도입부에 해당되는 본장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1-2절)· 교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3-8절)· 사회와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9-21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본장의 내용 등을 통해서 ‘행함 없는 믿음’의 위험성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약 2:14-26). 또한 성도의 실천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에 대해 골고루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윤리적 교훈들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상고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윤리는 그 목적뿐만 아니라 그 동기와 방법 및 과정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선한 것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자신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고 있는가? 내 원수까지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를 깊이 반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과연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자로서의 삶인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 12:11).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당시 로마 교회 내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간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와 이방 신전에서 제사에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는 문제들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본장에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 서로 비판하거나 상대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상호용납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 덕을 세움으로써 해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1-12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의심하는 바나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는 어떤 행동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하여 함부로 그를 판단함으로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3-23절에서는 전반부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경우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행동을 절제하며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자로서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자기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외적인 것에 강하게 매달리는 현대 풍조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요, 신앙생활에서 승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기도 제목 ①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십자가 복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너희가 거룩하게 입마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6절). 본장은 기록된 본서의 종결부로서, 주로 바울의 문안 인사와 마지막 당부가 언급됩니다. 먼저 바울 자신을 대신하여 본서를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할 뵈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1-2절). 이어서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각각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3-16절). 그후 바울은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분파주의자들을 경계하도록 당부한 다음(17-20절),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는 문안 인사를 소개하며 송영과 축도로서 본서를 끝맺고 있습니다(25-27절).

그런데 우리는 본장에 무려 26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뛰어난 복음 전도 사역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 덕분에있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복음 사역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헌신하는 동역자들 없이 그저 혼자서 주님의 지상 명령(마 28:18-20; 행 1:8)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만 합니다. 로마 교회는 비록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내실 있는 교회였습니다(롬 1:8). 바울은 겸손하면서도 사려 깊게 로마 교인들에게 안부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자신의 동역자들을 높여 주었습니다. 실로 그는 선생과 주로서 제자와 종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의 뜨거운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요 13:4-17) 선교에 전념했습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막 10:43)

-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복음증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 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은 전장에서 당시 로마 교회 내의 갈등을 서로 덕을 세움으로써 해결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어 유대인과 이방인간의 상호 용납을 통한 화해의 권면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며 동일한 구속의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함으로써 서서히 본서를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전반부(1-13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희생과 섬김의 정신으로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 배려할 것을 명합니다. 이로써 비록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민족적 차이가 있지만 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여 본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이 구속 목적에 부응할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14-33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아 사역한 것이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속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14-21절). 이어 선교 여행 중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을 약속하며 계속해서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22-33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는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의 냉담한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알려진 이방 세계의 대부분을 자신의 사역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이울려 순수한 땀과 눈물로 십자가 복음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됩시다.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고후 10:16).

기도 제목 ① 한 영혼이라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려는 구령의 열정을 주옵소서. ② 단기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시는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유수(B.C. 586-538년)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재건한 후에 익명의 시인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느 12:27-43).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국가 재건이 완성된 이후 이스라엘은 군사·사회·경제적으로 안정과 부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결과임을 본 시를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시는 세 연으로 나뉘는데 각 연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 찬양의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이유들을 살펴보면 먼저 전반부 1-6절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찬양합니다. 이어서 중반부 7-11절은 모든 자연 만물을 친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12-20절은 통치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각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능력은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분의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를 예시합니다(계 11:15-18). 실로 여호와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구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지들을 친히 보호·통치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참된 구원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특별한 구원 은총의 그늘 아래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시 147:1)

기도 제목 ① 대속의 은총인 십자가 그늘 아래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이 기도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온 우주를 조성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힘을 다하여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러한 본 시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순서에 따라서 천상 세계로부터 땅과 바다에 거하는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마치 온 우주가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되어 장엄한 교향악을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줌으로써 전체 분위기가 힘차고 박진감 넘치게 흐르게 합니다.

이러한 본 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는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하여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어 7-10절에서는 지상 세계와 바다에 사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다음 11-13절에서는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위임받은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장 구체적으로 계시 받은 선민(選民)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실로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들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된 자세는 바로 일치된 찬양의 모습뿐입니다. 더욱이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고 그 은혜를 힘입는 인간들이야말로 더 크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엡 1:12; 2:8,9).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와 복음전파의 사명을 통해서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라”(시 148:13).

기도 제목 ①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토록 하옵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시는 할렐 시편(146-150편, 할렐루야로 시작되어 할렐루야로 끝맺는 시편 마지막의 다섯 시편을 일컫는 말)의 마지막 시편이자, 또한 시편 전체의 결론 시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 시에서 시편의 결론부답게 시편의 중심 주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6절에서 나타나듯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에 대한 권면은 여섯 절밖에 되지 않는 이렇게 짧은 시(詩)에서 무려 13차례나 나타납니다(‘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이렇게 짧은 한 편의 시 안에서 이렇게도 많이 ‘찬양하라’가 나타나는 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장소와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이어 중반부 3-5절에서는 시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보여 줍니다. 끝으로 후반부 6절에서는 찬양의 주체와 그 자세로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끊임없이 찬양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시를 마칩니다. 진정 어떠한 형편에 있던 시간에 자신이 처한 모든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해 끊임없이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바라 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오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처한 인생을 구속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구속주 하나님, 실로 우리의 생명이 다 하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예수, 그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할렐루야”(시편 150:6).

기도 제목 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십자가만을 찬양토록 하옵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시는 인류의 창조주이시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과거에 많은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찬양을 촉구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평생 구원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본 시는 죄인을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특히 본 시에 나타난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묘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본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전반부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창조자요 왕이시며 과거의 역사 속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은 후반부 5-9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公義)의 시행에 따른 악인에 대한 심판과 그 의로운 백성이 얻게 될 영광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찬양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 43:21). 그리고 장차 맞이하게 될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찬양이 끊임없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되 즐거워하며 춤추며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곧 찬송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신앙고백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왕의 왕되신 예수께 찬송을 드리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합당하도록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무한한 은총을 우리의 입술을 드러 찬양케 하옵소서.

② 각 나라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세상 사람들도 참 지혜를 찾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고도의 수행을 통해서, 참 스승을 만나서 참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참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본문은 참 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7절). 참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멸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뚝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10:28).

미련한 자는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요1:11).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그분을 평가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상의 지혜로 말씀하실 때마다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평가하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요3:20). 이처럼 미련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으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만을 좇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잠 28:28).

기도 제목 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② 단기선교를 통해 전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먼저 인정받기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5-6a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마10:29-30). 즉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합당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산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히10:14).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죄사함뿐 아니라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을 좇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배의 삶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1:9).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시 62:6).

기도 제목 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악인의 길은 구부러진 길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14-15절). 길이 구부러졌다는 말은 행위가 바르지 못하여 악으로 치우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마음이 부패하고 패역하여 악한 길 즉, 구부러진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 구부러진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길이며 자기 마음에 좋은 데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람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구부러진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는 종국에 자신들이 가야할 곳이 사망의 길임을 모르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구부러진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진리이시며 생명의 길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주님은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니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마 16:24).

기도 제목 ①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람들은 환경이 사람을 움직이게도 하고 감사하게도 하고 불평하게도 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경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사고의 중심지이며 의식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한 행위나 악의 근원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생을 주관하는 곳이기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23절)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 속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타락된 본성에 의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어 들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 사람이 되어 그의 인도하심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8:9). 이럴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이미 그 마음 속에 모든 죄악을 버리게 되고 마음을 청결하게 되는 자들이 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근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분만을 좇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4).

기도 제목 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명의 근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송요한 선교사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길을 감찰하시고 그 길에 따라 보옵하십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니라”(22절).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그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 습성에 따라 악을 행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침내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저가 옹덩이로 파 만듬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시 7:15). 악을 행하는 자가 자기의 악한 행위 때문에 스스로 판 옹덩이에 빠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의 악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자기의 악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주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23절). 악인이 자기의 악에 걸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훈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미하게 되다’라는 것은 멸망으로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훈계의 삶이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있는 훈계로 들려온다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딤후 2:19).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질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16-1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죄악 가운데 ‘교만한 눈’이 제일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교만이 모든 죄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혀’는 남을 거짓으로 속이는 삶을 의미합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은 모든 악의 근본이 마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악한 행동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망령된 증인’과 ‘이간하는 자’는 이웃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이것들이 서로 화목해야 할 이웃을 분쟁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런 모든 악이 우리들 중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11:29-30).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의 낮아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귀한 한 날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벧전 5:6).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좇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충현선교훈련’(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솔로몬 왕이 젊은이들에게 음행의 사실을 들어 음행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에서는 주로 음행이 가져다주는 비참한 결과를 말씀하였습니다(6:20-35). 하지만 7장에서는 음행에서 벗어날 때 주는 결과를 즉각적으로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갖는 효과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5절).

어떻게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이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네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1-3절). 이 말씀처럼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항상 주의깊게 경청하고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간직하라'는 것은 귀중한 보화를 도난당하지 않게 금고에 숨겨 두듯 마음 속 깊은 곳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젊은이들에게 명령으로 받아들이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판에 새겨야 합니다. 이처럼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린 것과 죽은 지 삼일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믿고 마음판에 새기고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그리스도의 편지니...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고후 3: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이 없이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문은 은을 받지 말고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10절). 금과 은을 지혜의 훈계와 지식에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금과 은보다는 지혜의 훈계와 지식이 중요하며 가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3:14). 이처럼 지혜의 훈계와 지식이 인간의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인 영양분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금은보다 지혜의 훈계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며 세상 모든 것보다 이것에 우선 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세계 선교에 자원하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8)

-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소서.
 ② 전 교회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지혜가 집에 잔칫상을 차려 놓고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3절). 이는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사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천국 잔치로 초청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어 죄악 중에 거하며 범죄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의 복음을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백성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죄인들인 창녀나 세리와 같은 천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의 초청을 받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이 바로 지혜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없는 자에게 이르기를”(4절).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길이 구원의 길임을 외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5).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한 국교회의 모든 해외 선교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증거하심으로써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완전한 의를 행함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의인으로서의 삶의 수고가 생명으로 이끈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16절). 그러나 악인의 수고는 죄에 이른다고 의인의 수고와 대조하면서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서 ‘죄’는 엄중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한 순간도 자신의 유익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수고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삼상15:22).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길에서 믿음의 동반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가시발길을 걸어가는 수고입니다. 또 땅 끝까지도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수고입니다. 이런 의인의 수고를 통해 의인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의 수고를 통해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미련한 자는 불의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많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생명이 사라지는 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16: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이 모든 재물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재물을 통해 영혼의 만족함을 얻으려는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눅12:19-20).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때에는 소유했던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면 불의한 재물도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날을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오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헛된 세상의 재물을 쌓기보다는 깨어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살전5:6).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벧후3:11-12). 또한 세상과 벗된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약4:4).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분만을 기쁘시게 하며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마 6:20).

기도 제목 ① 오늘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②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으로만 사역하는 많은 단기선교사들이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공과

7월 구역 공과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구원의 은총

주님은 우리의 모든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물의 모든것을 다스리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주님은 우리의 병든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핵심 포인트
7/1	고전 11:26	주의 만찬	주의 만찬으로 구원의 은총을 고백해야 합니다
7/8	시 139:1-6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고백해야 합니다.
7/15	막 23-12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믿음으로만 가능한 구원의 은총을 전해야 합니다.
7/24	창 138-13	롯의 선택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에 겸손해야 합니다.
7/29	삿 21-5	그리함은 어찌이뇨?	말씀으로 나타난 구원의 은총에 순종해야 합니다.

1.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공과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1. 주의 만찬

| 포인트 |

주의 만찬으로 구원의 은총을 고백해야 합니다.

| 찬 송 |

285장(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284장(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고전 11:26 |

²⁶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7월의 주의 성찬을 앞두고, 주의 식탁을 대하기에 앞서 먼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 명하셨는지 묵상해 봅시다.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나에게 주의 만찬은 어떤 의미를 가졌나요?

우리는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를 얼마나 깨닫고 있나요?

· 설교 본문 읽고 나누기

1.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히11:6)

성도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태도로 공개적으로 고백함을 통해 예수님과 그의 □□□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고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의 만찬은 교회만의 특별한 예식이며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릴 때에 나타납니다. 주의 만찬 앞에서는 주의 □□□에 대한 신앙고백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편당을 나누는 행위는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린도교회에서는 왜 분쟁과 나뉘이 생겼습니까?
(고전 11:19)

2. 그리스도와 나누는 친밀한 교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6:35)

성도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월절의 모든 예식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땅에서 주님이 참석하시는 만찬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천국에서의 새로운 만찬을 약속하십니다. 성도들이 참석하는 주의 만찬은 천국의 축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 26:29)

요한계시록 19장 7-9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3.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총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전 10:16)

성도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잔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 되었고 천국의 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셨고, 영원한 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이 거룩한 만찬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십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의 은총을 덧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주의 만찬을 통하여 주를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2.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 포인트 |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믿어야 합니다.

| 찬 송 |

389장(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449장(이 세상의 친구들)

| 본문 : 시 139:1-6 |

¹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²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³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⁵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⁶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돌보십니다. 많은 관심으로 자세히 살피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필요를 익히 잘 아시고 모든 사랑을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며 행했던 모습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인간의 이해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2.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10:13)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다른 ☐☐ 과 ☐☐ 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 것과 할 수 ☐☐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 과 ☐☐ 들을 아십니다.

(목사님 설교문을 읽고 답을 찾아 보세요.)

자신의 약점과 한계로 인해 실패하거나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서도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실패를 극복한 적이 있습니까? 나누어 보십시오.

3.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 6:8)

*설교 읽고 나누기

1. 우리의 가능성을 아시는 분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139:16)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미래까지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떤 계획을 말씀해주십니까? (막 5:17)

주님이 베드로에게서 보신 가능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16:18)

베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눅22:32)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행 2:38-41)

잠언 3:5-6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성도는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고 믿음도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전 13:12)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롬8:26-28)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전해야 합니다.

“□□□□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 힘쓰라 □□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며 □□하라”(딤후 4:1-2)

3.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 포인트 |

믿음으로만 가능한 구원의 은총을 전해야 합니다.

| 찬 송 |

273장(저 북방 얼음산과) / 254장(주 은총 입은 종들이)

| 본문 : 막 2:3-12 |

³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⁴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⁵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⁶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⁷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⁸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⁹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¹⁰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¹¹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¹²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일에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한없는 위로와 무한한 인내로 돌보십니다.

여러분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계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 간절한 기도 |

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인생을 온전히 맡겨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2.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합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영혼을 보시는 예수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요마는
(렘 17:9)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만 보았지 내면적인 문제는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중풍병자의 처참한 육신만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든 육신이 아니라 병든 □□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사람의 □□이었습니다. 주님은 죄에 둘러싸인 그의 □□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지가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해 논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가 주홍 같을지라도 □□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같이 되리라” (사 1:18)

3.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 9:2)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에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네 사람에게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였습니까?

*설교 읽고 나누기

1. 한 중풍병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지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약5:14)

한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막 2:3-5)

한 중풍병자와도 같이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교회로 데려 올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거부해서가 아니라 수고가 될까 여러분이 망설이는데 있을 것입니다.

“□□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을 얻으리라 이리므로 너희 □를 서로 고하며 □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약 5:15-16)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중풍병자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기에 친구들의 믿음의 실천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 힘든 상황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4. 능력의 예수님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 4:2)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음만이 여러분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과 함께 계셨고 □□□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이 있었으니 이 □□□은 사람들의 의 빛이라" (요 1:1-4)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 뿐 아니라 '_____ 권세'를 가졌습니다.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는 □□□을 받았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4. 롯의 선택

| 포인트 |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에 겸손해야 합니다.

| 찬 송 |

357장(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514장(누가 주를 따라)

| 본문 : 창 13:8-13 |

⁸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⁹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 하나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¹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¹¹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¹²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¹³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중풍병자와 같이 여러분도 한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엡 2:1)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엡2:6-7)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네 사람처럼 가난한 영혼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안다면 더 이상 무슨 핑계도 댈 수 없을 것입니다.

| 간절한 기도 |

1.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2.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때, 조카 롯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삼촌에게 직접 축복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망설임없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고, 그에게 주어질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2. 세상을 향한 선택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골 3:2)

롯의 선택은 소돔성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죄가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자신의 딸들을 출가시키고자 했습니다. 롯의 영혼은 죄에 대하여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롯이 처음 선택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창 13:10)

그는 여호와와 동산과 애굽 땅의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복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그 것을 분별하는 눈이 멀게 됩니다.

다음 성경구절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창 36, 삼하 11:2, 창 13:10]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만일 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를 섬기겠노라” (수 24:15)

*설교 본문 읽고 나누기

1. 자신을 위한 선택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약1:12)

롯에게 선택은 일종의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험에 실패하였습니다. 먼저는 욕심으로 강박해진 마음이 선택권을 삼촌에게 주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취했습니다. 또한 요단 들판을 지상의 낙원이라 여기면서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롯이 가지는 선택의 기회는 누구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창12:3, 13:9)

롯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했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시라” (딤후4:10)

3. 선택의 결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3)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약2:23참조) 그러나 롯은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의 집은 불에 타서 없어졌고, 재산은 재가 되었으며, 아내는 죽고, 두 딸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창19장)

롯에 나중에 처해진 비참한 결과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의 성구와 알맞은 내용을 이어보세요.

- | | |
|-----------|-------------------------|
| 요 7:38 · | · 주의 이름을 부르는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
| 롬 10:13 · | · 금홀에 풍성하신 하나님 |
| 엡 2:4 · | · 믿는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

하나님은 금홀에 풍성하시고 은총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우선이었습니다.

롬 6:23의 말씀을 적어보세요.

5. 그리함은 어쩔이뇨?

| 포인트 |

말씀으로 나타난 구원의 은총에 순종해야 합니다.

| 찬 송 |

191장(양 아흔 아홉 마리는)

192장(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 본문 : 사 2:1-5 |

¹ 여호와와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감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²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쩔이뇨 ³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⁴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⁵ 그러므로 그 곳을 이름하여 보감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을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며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리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
□와 □□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왔다는 것은 □□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하여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가 되느
니라 하시더라” (마13:22,23)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 간절한 기도 |

1. 주여, 세상에 눈을 돌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지켜주소서
2.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복을 허락하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음으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음을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단계까지는 가지만 말씀 앞에 완전히 깨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외식적인 태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니까? 불순종하는 모습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 성경구절을 찾아 적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20,21

히브리서 4:12

2. 은총의 기회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쩐이뇨 (삿 2:2)

“그리함은 어쩐이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고 판단을 내릴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각각 반응한다면 그 본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한다면? → ()

이유를 예수님께 이해시키려고 한다면? → ()

여러분에게 반성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원한다면, 진실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
□□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 가운데 사는 것은

* 설교 본문 읽고 나누기

1. 은총의 말씀

-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 시 89:34)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바꾸시거나 깨뜨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 이 없느니라”
(롬 11:29)

하나님의 은총은 값없이, 언제나 아무 대가없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을 때 세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 그 목소리만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귀하게 여기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한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위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을 믿는 □□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3. 은총의 회복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삿 2:4)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질문에 진실한 눈물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진실한 반성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마 26:75)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은 □□을 이루는 것이라 (고후 7:10)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먼저 울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 뒤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은총을 회복하려면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분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7)

남성도구역예배공과

‘남성도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죄의 회개는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앞에 정직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셨듯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하시는 것을 행함이라”(요일 3:22)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면, 여러분은 그 구하는 바의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 간절한 기도 |

1.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2.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그리함은 어찌이뇨?

(삿 2:1-5)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단계까지는 가지만 말씀 앞에 완전히 깨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외식적인 태도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때때로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은총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1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과 함께 자유, 평화, 세력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대항했을 때 주님은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행

오. 위선자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은총의 기회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함은 어찌이뇨?”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고 판단을 내릴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타협할 수밖에 없노라고 하나님께 변명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를 예수님께 이해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20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만약 여러분이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면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진실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은총의 회복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4-5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질문에 진실한 눈물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마 26:75) 베드로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진실된 고백

9:4) 바울이 예수님을 계속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고 마침내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함께 영생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1:29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실패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바꾸시거나 깨뜨리시지 않습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시 89:34). 하나님의 은총은 값없이, 언제나 아무 대가없이 주어집니다. 한 가지 조건만 지킨다면 말입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2절). 다시 말해 신자들은 세상의 가치있는 것들과 타협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2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을 때, 오직 우리 자신의 세상적인 목소리만 더 크게 들려올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가치를 곧바로 깨닫지 못하지만, 만약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한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20-21은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위대합니다. 히브리서 4:12은 말씀의 능력을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을 속이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대적하는지 아십니다. 겉으로만 그럴 듯하게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이 그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먼저 울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 뒤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10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의 눈물을 흘린 뒤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곧잘 울면서 뉘우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총을 회복하려면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분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시 51:17)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울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셨듯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발 하나님을 청종하십시오.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요일 3:22). 만약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면, 여러분은 그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재앙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5년 7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만나 : 황진섭(1-10일), 최종철(11-20일), 윤수일(21-31일)

구역예배공과 : 김성훈 목사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